예비노인층의 노인공동생활주택 개별공간 계획요소에 대한 선호분석*

Preference for the Spatial Planning Elements of Units in Senior Congregate Housing according to Pre-Senior People

경희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주거환경전공
박사 후 연구원 홍 이 경**
교 수 오 혜 경***
Major of Housing and Interior Design. Division of Human Ecology, KyungHee University
Post-doctor : Hong, Yi-Kyung
Professor : Oh, Hye-Kyung

〈Abstract〉

Korea is having entered the Ageing Society since 2000 and expected to be the Aged Society by 2019. Proliferation of the nuclear families, attitude shift of supporting the senior people and higher participation of married women in public life as well as the steadily increasing senior population have caused the need for development of the facilities or housings for the senior people.

This study i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the congregate housing as one of the options for those senior people who are healthy enough do not need the nursing home. For the questionnaire survey, the preference of 500 Korean pre-senior people on spatial planning elements of units for the senior congregate housing was investigated. The collected data are analysed using SPSS 10.0 for Windows to deduce frequency, percentage, average, Chi-squared test with cross-tabula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Most of respondents preferred to the size of 11-15pyung(for single), 21-25pyung(for couple). The type of spatial composition was preferred one-room type(for single), 1-2 bedroom type with kitchen(for couple). And they preferred L/DK type. Also, they preferred furnished units not to bring their own furniture when relocating to the senior congregate housing, which was somewhat different result from previous studie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preferred spatial planning elements and gender, income, and level of education.

▲주요어(Key Words) : 노인공동생활주택(senior congregate housing), 공간계획요소(spatial planning element), 개별공간(units), 선호(preference)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국은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으며 2019년에는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노인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우리사회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는 핵가족화, 노인봉양에 대한 의식, 여성의 사회진출 등으로 인해 노인을 위한 시설이나 전용주택의 개발이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21세기의 탈근대 사회에 노출된 노후생활은 완전고용이 사라진 데 따른 은퇴기간의 확대로 제3의 연령에 대한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해졌으며, 노후의 공간환경의 의미와 대안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홍형옥, 2002). 따라서 시설이 아니면서 노인생활을 지원하는

* 이 논문은 2005년도 두뇌한국21 사업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 주 저 자 : 홍이경 (e-mail : lucis@hanmail.net)
*** 교신저자 : 오혜경 (e-mail : ohk@khu.ac.kr)

주택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상류층을 위한 은퇴노인촌이나 영세민을 위한 양로원 혹은 요양원의 개념이 아닌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산층용 노인전용주택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여러 선행연구들에서는 시설이 아닌 일반주택의 이미지를 강조하는 '노인공동생활주택'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이는 지역사회통합형 노인주거의 대안으로서 노인공동생활주택의 개념도입과 제도, 디자인 전략 등을 다룬 연구(홍형옥, 1999)를 시작으로 하여, 일찍부터 노인공동생활주택을 개발해온 영국의 사례를 검토하여 한국에의 시사점을 도출하였고(홍형옥, 2001a), 이후 노인공동생활주택에 대한 태도와 선호를 통해 수요자의 요구에 대응하는 다각적인 노인공동생활주택의 개발방향을 제안(홍형옥, 2001b)하고 있다.

또한 노인공동생활주택의 다각적인 개발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로서 노인공동생활주택에 대한 태도와 선호를 사회계층별로 분석한 연구(홍형옥, 지은영, 2002)와 노후의 일·여가태도에 따라 파악한 연구(홍형옥, 유병선, 2003)가 있으며, 노인공동생활주택에 대한 태도를 서울·수도권, 부산, 광주, 대전의 지역별 견해를 비교한 연구(홍형옥, 지은영, 2004)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노인공동생활주택을 제안하고 있는 여러 선행연구들과 같은 맥락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특히 노인이 주로 생활하는 공간인 개별공간의 계획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선호를 다룬 선행연구들에서 대부분 건축적 입지나 공급형태 등을 다루고 있어 구체적인 디자인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되는 실내환경에 대한 사회조사가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개별공간 보다는 전체 주거형태, 입지조건, 서비스, 입주비용 등에 대한 요구위주로 전개되고 있어 공간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실내디자인적 측면에서의 선호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보다 구체적인 개별공간의 계획요소에 대한 선호를 파악하고자 하며, 이를 근거로 하여 노인공동생활주택의 개발시 필요한 개별공간 계획의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결과는 보다 한국적인 상황에 적합한 노인공동생활주택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을 기대한다,

2. 연구의 방법

1) 조사대상

조사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예비노인층(50-59세) 500명을 대상으로 지역별, 주거형태별로 분포가 고르게 될 수 있도록 편의표집(convenience sampling)하였다. 예비노인층을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이들이 우리나라가 2019년 고령사회에 진입하는 시점에서 노인주거의 주된 수요계층이 되기 때문으로 이들의 실내디자인 요소에 대한 선호경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지침에 활용하고, 실제 계획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2) 조사방법 및 자료처리

본 조사에서는 질문지를 이용한 사회조사방법으로 2003년 11월 20일-12월 20일에 걸쳐 실시하였다. 본 조사에서 사용된 질문지의 내용이 아직 한국에 실제하지 않는 주택유형인 노인공동생활주택의 공간계획요소에 대한 선호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구성되어 본 조사의 응답이 자칫 소홀해 질 수 있기 때문에 조사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원들이 직접 설문문항을 설명하고 응답을 기입하는 일대일 면접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0.0 for window program을 이용하여 처리하였고 각각의 내용에 대해 빈도, 백분율, 평균값,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3) 조사도구

본 조사에 사용된 조사도구인 질문지는 여러 선행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항목을 구성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사회인구경제적 특성(성별, 연령, 교육정도, 소득, 직업)과 현재의 주거특성(주택유형, 소유형태, 규모, 거주기간, 거주지역)을 조사하였고, 개별공간의 규모, 개별공간의 구성(공간전체, 각실), 개별공간에서의 행태(수면방법, 식사방법, 목욕방법, 샤워방법, 세수방법, 머리감는 방법), 개별공간별 가구 및 기기(침대종류, 욕조종류, 가구제공방식, 개별공간별 가구 및 기기)에 관한 문항을 구성하였다.

II. 이론적 고찰

노인들은 신체 기능의 저하로 인해 시력, 청력, 근육의 운동능력 등이 현저하게 낮을 뿐 아니라 식사, 옷입기, 침구 정돈, 시장 보기 등의 일상생활 동작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인의 주거환경에는 이러한 특성을 배려하는 디자인이 필요하다. 특히 노인들은 이동성이 줄어들어 외부보다도 실내공간이 생활영역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므로, 실내환경에 대한 연구는 더욱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이러한 노인을 위한 개별주거공간에 대한 연구는 주택규모나, 공간구성, 각 실별 계획에 대한 선호를 중심으로 파악하고 있다.

우선 노인주택의 규모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중년층의 상황설정에 따라 선호하는 노인주거의 특성을 파악한 오찬옥, 이연숙(1993)의 연구에서 부부/건강시는 31-35평 주택을 선호하였고, 부부/건강악화시는 21-25평을 가장 선호하였다. 혼자거주시는 건강에 상관없이 45%정도가 11-20평을 선호하였다. 이중 가장 많은 변화를 보이는 것은 20평 이하에 대한 선호로 건강이 악화됨에 따라 증가하였다. 또한 대한주택공사(1996)의 연구에서는 16-20평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고 희망하는 방의 수는 2-3개(2개 56.3%, 3개 36.8%)였다. 방의 수는 30.2%가 작더라도 욕실, 부엌, 거실 등이 구비된 형을 원하고 있었다.

또한 노인주거시설에서의 단위주호 공간에 대한 선호를 보

면, 김태일(1995)은 유료노인주거시설의 계획조건에 관한 연구에서 조사대상자들이 희망하는 주거규모와 실의 수를 바탕으로 적정규모를 제시하였다. 기본적으로 단위주거세대는 1인용(독신세대용)과 2인용(부부세대용)으로 구분되어 계획해야 하고, 공용면적을 포함한 15평-19평은 1인용주거세대, 20-24평은 2인용 주거세대로 적절하다고 보았다.

박근형, 양우현(1996)의 연구에서는 독신노인의 경우는 10-14평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15-19평, 10평 미만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부부노인의 경우는 20-24평의 선호도가 가장 높고, 15-19평, 25-29평, 10-14평, 30평 이상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희망하는 방의 개수는 독신노인의 경우 70.8%가 방 2개를 선호하였고 부부 노인일 경우 2-3개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거실에 대해서는 독신으로 산다면 '있어야 한다'가 87.1%였고, 부부가 살 경우에는 95.9%가 있어야 할 것으로 답하여 대부분의 노인이 거실을 희망하고 있었다.

홍형옥(2001a)은 노인공동생활주택에 대한 태도와 선호에 대한 연구에서 30대부터 60대에 이르는 잠재수요층이 선호하는 단위주호의 규모는 평균 20.8평이었고, 홍형옥, 지은영(2002)은 사회계층별 노인생활지원주택에 대한 태도와 선호에 대한 연구에서 상위계층은 24평, 중위계층은 20.71평, 하위계층은 20평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서기영, 이진혁(2002)은 노인이 선호하는 단위주호에 대한 선호도 조사에서 1인실로는 10-12평이, 2인실로는 16-18평이 가장 많은 선호도를 나타내었다.

조사결과를 종합해볼 때 여러 선행연구에서는 일반 주택을 대상으로 하여 적정규모를 파악하거나 또는 노인주거시설이나 공동생활주택을 대상으로 하여 노인의 전용공간인 개별공간의 규모를 1인실과 2인실로 구분하여 선호하는 개별공간의 규모를 파악하고 있었다. 응답자의 대부분은 현재 거주평수와 비교하여 공간을 축소하려는 경향이 많으며 경제적, 관리적 측면으로 인해 넓은 평수보다는 소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노인이 선호하는 공간구성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김태일(1995)은 2인용 주거세대의 평면으로 LDK를 기본모델로 하여 1K(축소형)과 2K(변형형), 그리고 2LDK(확대형)등 다양한 단위주거세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신영숙(2001)은 노후의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운동시설과 의료 및 건강관련시설, 산책로, 편리한 욕실 등을 선호하였다. 모은경(2001)은 노인을 위한 집합주거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하였는데, 평형구성에 대해서 53.0%는 비슷한 규모의 평형으로 구성, 33.5%는 다양한 규모의 평형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홍형옥(2001)은 노인공동생활주택에 대한 태도와 선호에서 내부는 '거실+부엌+침실1-2개+욕조가 있는 화장실' 을 선호하는 비율이 48.4%이고, 'LDK+침실+샤워가 붙은 화장실' 을 선호하는 비율이 29.5%이며 이러한 경향은 학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노인을 위한 주택을 개발할 때 비슷한 평형의 주택들로 구성하여 동질적이 되도록 하고, 각 집단은 다양한 평형으로 변화를 주는 것도 좋다고 하였다.

한편, 각 실의 계획과 관련하여 산업자원부(1998)의 고령화사회를 대비한 제품 및 환경디자인 방향설정에 관한 연구에서는 각 실의 계획과 관련하여 노인의 주요구를 파악하였다. 우선 온돌방과 침대의 선호도를 파악한 결과 온돌방이 90.7%, 침대사용이 9.3%라고 응답한 것으로 대부분 온돌방을 선호하고 있었다. 침대가 편하다고 대답한 경우를 보면, 다리나 허리 등 신체 어느 부분이 불편할 때 일어나기 편안한 것이 침대라서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사용하다 보면 침대가 더 편하다는 응답도 있었다. 또한 식사는 식탁에서 하기 편하다는 응답이 57.4%, 밥상이 편하다는 응답이 42.7%로 나타났다.

이영심, 이상해(2002)는 안전을 위해서 욕조없이 샤워 시설만 있는 형태가 이상적이라고 하였으며 샤워시설과 변기 옆에는 반드시 손잡이대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욕실에는 턱이 없어야 하며 미끄러움을 방지할 수 있는 바닥마감도 필수적이라고 하였다. 욕실문은 휠체어의 접근을 위하여 넓어야 하며 출입문은 슬라이딩 도어로 계획할 것과 문손잡이 역시 쉽게 잡을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III. 결과해석 및 논의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사회인구경제적 특성

조사대상 예비노인의 사회인구경제적 특성은 연령, 성별, 교육수준, 소득, 노후예상소득, 직업을 조사하였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경제적 특성 (N=500)

사회인구경제적특성	구분	빈도(%)
연령 (평균 53.7세)	50-54세	306(61.2)
	55-59세	194(38.8)
성별	남	234(46.8)
	여	266(53.2)
교육수준	초졸이하	98(19.6)
	중졸	195(39.0)
	고졸	169(33.8)
	대졸이상	38(7.6)
소득 (평균 370만원)	100만원 미만	5(1.0)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62(12.4)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112(22.4)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117(23.4)
	400만원 이상	204(40.8)
노후 예상소득 (평균 192만원)	100만원 미만	70(14.0)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196(39.2)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131(26.2)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58(11.6)
	400만원 이상	45(9.0)
직업	전업주부	108(21.6)
	판매서비스직	130(26.0)
	사무직	108(21.6)
	전문기술직, 경영관리직	65(13.0)
	기타(노무직, 기능직 등)	89(17.8)

연령은 50대 전반이 61.2%, 50대 후반이 38.8%로 평균연령이 53.7세이며, 성별은 남자가 46.8%, 여자가 53.2%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교육수준은 고졸이하가 92.4%로 조사대상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노후에 예상되는 소득은 평균 192만원으로 줄어들었는데 이는 노후에 가족수의 감소와 소득의 감소로 소득원이 감소되는 원인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직업은 판매서비스직 26.0%로 가장 많았으나 전업주부와 사무직이 21.6%, 기타 17.8%, 전문경영직 13.0%로 각 분류별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2) 주거특성

조사대상 예비노인의 주거특성은 주택유형, 주택소유형태, 주택규모, 거주기간, 거주지역을 조사하였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주거특성 (N=500)

주거특성	구분	빈도(%)
주택유형	단독주택	176(35.2)
	아파트	211(42.2)
	연립/기타(상가건물 등)	113(22.6)
주택소유형태	자가	425(85.0)
	임차	75(15.0)
주택규모 (평균 33.6평)	20평 미만	30(6.0)
	20평 이상 - 30평 미만	169(33.8)
	30평 이상 - 40평 미만	209(41.8)
	40평 이상	92(18.4)
거주기간 (평균 7.1년)	1년이상 5년 미만	223(44.6)
	5년이상 10년 미만	135(27.0)
	10년 이상	142(28.4)
거주지역	강남	203(40.6)
	강북	297(59.4)

주택유형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가 42.2%로 가장 많았고, 단독주택 35.2%, 기타 연립이나 상가건물등에 거주하는 경우가 22.6%였다. 소유형태는 자가가 85.0%로 가장 많았으며 주택규모는 평균 33.6평으로 30평이상-40평미만이 41.8%로 가장 많았고 20평이상-30평미만이 33.8%로 조사되었다. 거주기간은 평균 7년 1개월로 1년-5년미만이 44.6%로 많았으나, 10년 이상도 28.4% 조사되었다. 거주지역은 강북이 59.4%, 강남 40.6%로 비교적 비슷하게 표집되었다.

2. 개별공간의 규모

개별공간의 규모에 대한 선호는 혼자거주시와 부부동거시로 구분하여 각 상황에 따른 선호도를 조사하였다. 이는 노후에 처하게 될 구체적인 상황을 미리 전제한 후 개별공간에 대한 선호도를 파악함으로써 거주자의 선호경향을 보다 근접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었다.

우선 혼자거주시 선호하는 공간의 규모를 보면, 11-15평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41.2%), 16-20평(26.0%), 10평 이하(20.4%)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20평 이하 소규모 평수를 선호하는 비율이 85%이상 되고, 더 작은 15평 이하를 선호하는 비율 또한 60%가 넘어 혼자거주시 소규모 공간을 선호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에 비해 부부가 함께 거주할 때의 선호공간의 규모는 21-25평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37.2%). 다음으로는 26평 이상(27.6%), 16-20평(23.6%)였다. 21평 이상을 선호하는 비율은 65%정도로 혼자거주시와 뚜렷한 차이를 나타냈다.

<표 3> 개별공간의 규모에 대한 선호 (N=500)

구분		빈도(%)
혼자거주시	10평 이하	102(20.4)
	11-15평	**206(41.2)**
	16-20평	130(26.0)
	21-25평	49(9.8)
	26평 이상	13(2.6)
부부동거시	10평 이하	2(0.4)
	11-15평	56(11.2)
	16-20평	118(23.6)
	21-25평	**186(37.2)**
	26평 이상	138(27.6)

이러한 개별공간의 규모를 거주자의 사회인구경제적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혼자거주시 선호하는 공간의 규모는 연령, 교육수준, 노후예상소득, 직업, 주택규모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노후의 예상소득과 주택의 규모는 $p<.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고 연령, 교육수준, 직업은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또한 부부동거시에는 노후예상소득과 주택규모에 따라 $p<.05$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생략).

변인별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연령에 따라서는 50-54세 이하의 비교적 젊은 집단에서 11-15평을 선호하였고,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중졸, 노후예상소득에 따라서는 100-200만원 미만, 직업에 따라서는 판매서비스직에서 11-15평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주택의 규모에 따라서는 20-30평 미만에서 11-15평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았고, 30-40평 미만에서도 높은 선호도를 나타냈다. 그러나 40평 이상과 20평 미만에서는 16-20평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게 조사되어 소규모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혼자거주시에도 주택의 규모를 축소하지 않고 그대로 혹은 그 이상에 거주하려는 성향을 나타내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40평 이상의 중대형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혼자거주시 주택의 규모를 축소하려는 성향을 나타냈다.

부부동거시 선호하는 개별공간의 규모를 노후예상소득에 따라 살펴보면, 400만원 미만에서는 21-25평에 대한 선호가 높게 조사되었으나 300-400만원 미만의 경우 26평 이상에 대한 선호도 비슷한 비율을 보였으며 400만원 이상일 경우 26평 이상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게 나타나 노후예상소득이 높을수록 개별공간의 규모로 큰 평수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주택규모별로 살펴보면, 현재 40평 미만 거주자들은 21-25평에 대한 선호가 높았으나 40평 이상 거주자들은 26평 이상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 현 주택의 규모에 따른 차이를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혼자거주시나 부부 동거시 모두 차이가 있었던 노후의 예상소득과 주택의 규모는 개별공간의 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생각된다. 향후 노인공동생활주택의 계획시에는 이러한 상황별 공간의 규모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개별공간의 구성

개별공간의 구성에 대한 선호도를 파악하기 위해 개별공간 전체의 구성과 개별공간 각 실의 구성으로 구분하여 알아보았다.

1) 공간전체의 구성

전체 공간의 구성은 혼자거주시와 부부동거시에 따라 개별공간의 구성에 대한 선호도가 다르게 조사되었다. 혼자거주시에는 부엌 없는 원룸형이나 부엌 있는 원룸형에 대한 선호가 67.8%로 높게 나타났고, 독립된 침실을 갖춘 1침실, 2침실형에 대한 선호는 32.8%로 비교적 적게 조사되어 소규모의 개방형 평면에 대한 선호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부부동거시에는 혼자거주시 보다 독립된 침실을 원하는 비율이 85.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특히 2침실형에 대한 선호비율이 46.2%로 조사되어 부부 각자의 공간에 대한 요구가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독립된 침실을 갖추지 않은 형태인 원룸형(부엌있는/부엌없는)은 단지 14.6%에 불과해 부부동거시에 적합한 내부구성으로는 침실을 적어도 1개 이상 갖춘 내부구성이 선호됨을 알 수 있다. 또한 부부동거시에는 개별공간내에 부엌 없는 원룸형의 비율이 1.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어 부엌공간이 공간구성에 필수적인 공간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경향을 관련변인의 특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혼자거주시에는 성별과 교육수준에 따라 공간구성의 유형별 차이를 나타내었고, 부부동거시에는 노후예상소득에 따라 차이를 보여 노후의 상황별로 그 관련변인에 차이를 나타내었다.

혼자거주시 성별에 따라 공간구성유형에 대한 선호를 살펴보면, 여자는 남자보다 부엌없는 원룸형을, 남자는 여자보다 부엌있는 원룸형을 더 선호하였다. 또한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대졸이상은 부엌 없는 원룸형에 대한 선호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 단순한 공간구성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부부동거시 노후예상소득에 따라 공간구성유형에 대한 선호를 살펴보면, 예상소득이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미만일때 1침실형에 대한 선호비율이 높았고, 200만원-300만원 미만, 300-40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에서는 2침실형에 대한 선호가 높아 노후예상소득별 공간구성의 유형에 대한 뚜렷한 선호경향을 살펴볼 수 있었다. 즉, 소득이 높은 집단은 독립된 침실이 있는 공간구성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각 실의 공간구성

개별공간을 구성하는 각 실에 대한 공간구성은 거실/부엌/식당의 공간구성, 욕실의 내부구성, 욕실의 위치에 대해 알아보았다.

<표 4> 관련변인별 개별공간 전체의 구성에 대한 선호 (N=500)

변수		항목내용	개별공간 전체의 구성					x^2
			부엌 없는 원룸형	부엌 있는 원룸형	1침실형	2침실형	계	
혼자 거주시	성별	남	**103(44.0)**	65(27.8)	57(24.4)	9(3.8)	234(100.0)	12.183**
		여	**130(48.9)**	41(15.4)	79(29.7)	16(6.0)	266(100.0)	
		전체	233(46.6)	106(21.2)	136(27.2)	25(5.0)	500(100.0)	
	교육 수준	초졸이하	52(53.1)	17(17.3)	18(18.4)	11(11.2)	98(100.0)	31.949***
		중졸	98(50.3)	34(17.4)	56(28.7)	7(3.6)	195(100.0)	
		고졸	60(35.5)	51(30.2)	53(31.4)	5(3.0)	169(100.0)	
		대졸이상	**23(60.5)**	4(10.5)	9(23.7)	2(5.3)	38(100.0)	
		전체	233(46.6)	106(21.2)	136(27.2)	25(5.0)	500(100.0)	
부부 동거시	노후 예상 소득	100만원미만	3(4.3)	14(20.0)	27(38.6)	26(37.1)	70(100.0)	26.853**
		100-200미만	3(1.5)	34(17.3)	81(41.3)	78(39.8)	196(100.0)	
		200-300미만	0(0.0)	13(9.9)	51(38.9)	**67(51.1)**	131(100.0)	
		300-400미만	1(1.7)	4(6.9)	22(37.9)	**31(53.4)**	58(100.0)	
		400만원이상	0(0.0)	1(2.2)	15(33.3)	**29(64.4)**	45(100.0)	
		전체	7(1.4)	66(13.2)	196(39.2)	231(46.2)	500(100.0)	

** p<.01 *** p<.001

우선 거실/부엌/식당의 공간구성에 대한 선호도에서 거실은 분리되고 부엌과 식당이 함께 구성되는 L/DK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이 되었을 때 주거규모를 축소하려는 경향과 관계되어 중,소규모에 적합한 공간구성방식인 L/DK형을 많이 선호하였던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미국과 국내의 노인주거시설에 나타난 이들 공간의 구성도 주로 L/DK형이 대부분으로 이는 노인을 위한 소규모 공간에 적합한 공간구성방식이라 생각된다.

<표 5> 개별공간 각 실의 공간구성에 대한 선호 (N=500)

구분		빈도(%)
거실/부엌/식당의 공간구성	L/D/K형	103(20.6)
	L/DK형	**280(56.0)**
	LD/K형	47(9.4)
	LDK형	70(14.0)
욕실의 내부구성	**세면기+변기+욕조(샤워기 있음)**	**347(69.4)**
	세면기+변기+샤워부스	124(24.8)
	세면기+변기+욕조	25(5.0)
	세면기+변기	4(0.8)
욕실의 위치	**침실을 거치지 않고 진입할 수 있는 위치**	**319(63.8)**
	침실을 거쳐서 진입할 수 있는 위치	181(36.2)

그러나 개별공간의 계획에 있어 부엌의 크기는 노인공동생활주택의 경우 적어도 1일 1식 이상이 제공되기 때문에 개별공간에서의 부엌의 용도가 축소되어 간이부엌의 형태로 물을 끓이거나 간단한 식사정도를 해결할 정도로 작게 계획되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변인별 거실/부엌/식당의 공간구성을 살펴보면, LDK 공간구성별로 교육수준과 거주기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다음으로 욕실의 내부구성에 대해 살펴보면, 세면기+변기+욕조(샤워기 있음)에 대한 구성(69.4%)을 가장 많이 선호하였고, 다음으로는 세면기+변기+샤워부스만 있는 형태(24.8%)였다. 세면기+변기+욕조만 있는 형태(5.0%)와 세면기+변기로만 구성된 형태(0.8%)는 단지 6%정도에 불과했다. 이러한 욕실의 내부구성은 현재 아파트 욕실의 내부구성과 흡사한 것으로 익숙한 공간구성이 선호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선호결과를 미국과 한국 총 10개의 노인주거시설을 대상으로 공간계획의 특성을 파악한 두 연구(오혜경, 홍이경, 박민진, 2003; 오혜경, 홍이경, 김현지, 2004)와 비교해 보면, 미국에서는 욕조가 있으면서 샤워가 되는 시설이 3개로 작게 조사된 반면, 한국에서는 이러한 형태가 6사례에서 나타나 한국에서 욕조를 가진 구성이 많이 나타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노인의 안전을 고려한 계획이라기보다는 한국에서 일반적인 욕실의 구성방식을 노인주거시설에서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반욕조로 계획된 경우 욕조로의 출입이 어렵거나 목욕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건강상태가 좋지 못할 경우 샤워만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하여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목욕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노인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새로운 형태의 욕조를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욕실의 내부구성 선호와 관련해서 특징적인 사항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는 욕조공간에 대한 선호유무이다. 즉 욕조에 샤워기가 붙어있어 목욕과 샤워 모두를 할 수 있게 계획된 경우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샤워만 할 수 있거나 목욕만 할 수 있는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는 샤워만 할 수 있는 형태에 대한 선호가 목욕만 할 수 있는 형태에 비해 5배 가까이 더 높게 나타났다.

소비자보호원(1998)에 따르면 가정내의 노인 안전사고는 욕실/화장실에서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의 안전과 관계하여 공간의 구성에서부터 세부적인 장치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관련변인별로 욕실의 내부구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거주지역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표생략). 강남의 경우 욕조가 있는 공간에 대한 선호가 높았고, 강북의 경우 욕조없이 샤워부스로 계획되는 것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강북의 경우 욕조가 설치됨으로써 욕실공간의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비용면에서도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샤워만 설치되는 구성에 대한 선호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강남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욕실에서 기존의 욕실과 유사한 구성인 샤워가 포함된 욕조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욕구가 컸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욕실의 위치에 대해 침실을 거치지 않고 진입할 수 있는 위치에 대한 선호가 63.8%로 높게 나타났고, 침실을 거쳐서 진입할 수 있는 위치가 36.2%였다. 첫번째 구성은 출입문에서 각 공간으로의 진입이 가능한 유형으로 현관에서 모든 공간으로의 접근이 한번에 이루어지는 동선을 가지고 있어 욕실에서의 비상사고에 대처하기 용이하여 조사대상자들의 선호도가 높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 구성은 욕실을 갈 때 반드시 침실을 거쳐야 하는 형태로 개별 공간내에서 가장 개인적인 행위가 일어나는 공간들을 인접시킨 계획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주거시설의 사례분석에 나타난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서 독립적으로 욕실로 진입이 가능한 유형이 실제 노인주거시설에서도 6-7사례 나타났다.

관련변인별 욕실의 위치에 대해서는 직업과 거주지역에 대해서만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표생략). 즉 직업에 따라서는 기술직이나, 관리직과 같은 전문직이나 전업주부에서 침실을 거쳐서 진입하는 유형에 대한 선호가 높았고, 판매서비스직이나, 기능직, 노무직에서는 침실을 거치지 않고 진입하는 유형에 대한 선호가 높았다. 또한 거주지역에 있어서도 강남지역은 침실을 거쳐서 진입하는 유형에 대한 선호비율이 높았으며, 강북지역은 반대의 경향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이러한 두 가지 공간구성의 유형에 대해 실제의 사례

에서는 침실을 거치지 않고 독립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유형이 많았고, 응답자의 다수가 이러한 유형에 대한 선호경향을 나타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욕실로의 진입이 가능한 유형으로 개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관련변인별로 차이가 있었던 직업과 거주지역별 차이는 향후 노인공동생활주택의 계획시 수요자에 대응하는 공간계획의 요소로 활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4. 개별공간에서의 행태

개별공간의 각 공간에서 일어나는 노인의 행태인 수면방법, 식사방법, 목욕방법, 샤워방법, 세수방법, 머리감는 방법에 대한 선호도를 알아보았다. 이는 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노인들의 생활행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보다 한국 노인들에게 적합한 디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탐색을 위해 시도되었다.

<표 6> 개별공간에서의 행태에 대한 선호 (N=500)

구분		빈도(%)
수면방법	좌식(이불과 요)	262(52.4)
	입식(침대)	183(36.6)
	입식(딱딱한 침대 위에 요를 깔고)	55(11.0)
식사방법	좌식(밥상)	32(26.4)
	입식(식탁)	368(73.6)
목욕방법	샤워만 하는 것이 좋다	141(28.2)
	물을 받아놓고 욕조 밖에서 씻는 것이 좋다	95(19.0)
	욕조에 물을 받아 몸을 담그면서 하는 것이 좋다	264(52.8)
샤워방법	서서하는 것이 좋다	90(18.0)
	서서하지만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있으면 좋다	410(82.0)
세수방법	앉아서 물을 받아 놓고 하는 것이 좋다	231(46.2)
	서서하는 것이 좋다	269(53.8)
머리감는 방법	앉아서 물을 받아놓고 감는 것이 좋다	107(21.4)
	샤워의자에 앉아 샤워로 감는 것이 좋다	286(57.2)
	서서 샤워로 감는 것이 좋다	107(21.4)

1) 수면방법

우선 침실에서의 행태를 선호하는 수면방법에 따라 좌식과 입식으로 구분하여 파악하였다. 이불과 요를 사용하는 방식인 좌식생활이 52.4% 차지하고 있었고, 침대를 사용하는 입식이 36.6%, 딱딱한 침대를 사용하여 온돌과 같은 느낌을 준 입식도 11.0%였다. 즉 입식과 좌식의 방식이 거의 비슷한 비율로 조사되어 한국 전통적인 좌식의 생활방식에서 입식에 대한 선호가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딱딱한 침대의 사용에 대한 선호부분은 입식의 침대를 사용하면서도 수면시 온돌바닥에서 자는 것과 같은 느낌을 줄 수 있게 고안된 침대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이러한 디자인도 향후 노인공동생활주택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로 판단된다.

그러나 침대의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부분은 안전사고에 관련된 부분이다. 침실에서의 안전사고 발생비율이 주택내 사고발생이 가장 많았던 욕실/화장실 다음으로 침대에서 떨어져서 사고가 난 경우가 많았다(소비자 보호원, 1998). 또한 남자가 여자보다 침대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도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침대를 사용하여 입식으로 할 경우 논의된 부분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개별공간에서의 가구의 제공방식과 함께 고려되어져야 한다.

2) 식사방법

개별공간 중 식사공간에서의 행태를 조사하기 위해 식사방법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하였다. 식사방법에서는 수면방법에서보다 명확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상에서 식사를 하는 좌식에 대한 선호는 26.4%에 불과했고 식탁을 사용한 입식에 대한 선호는 73.6%로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산업자원부(1998)의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제품 및 환경디자인 방향설정에 관한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식탁에서 하기 편하다는 응답이 57.39%, 밥상이 편하다는 응답이 42.7%로 조사되어 그 비율에는 차이가 있지만 입식에 대한 선호가 좌식에 대한 선호보다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전통적으로 밥상에서 식사를 해 왔던 행태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서 전통적인 생활방식에서는 집안의 어른인 노인들이 자녀들의 봉양을 받으면서 살아왔으나 노인들끼리 거주하는 노인공동생활주택에서는 스스로 식사를 준비하고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입식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즉 신체적으로 약한 노인들에게는 밥상을 차리고 드는 일이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힘이 덜 드는 입식에 대한 선호가 높았던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이미 입식 식탁을 사용하고 있는 상태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파악된다.

3) 목욕방법

목욕방법에 대한 선호경향을 파악한 결과 욕조에 물을 받아 몸을 담그면서 한다가 52.8%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샤워만 한다(28.2%), 물을 받아놓고 욕조 밖에서 씻는다(19.0%)로 조사되었다. 이같은 결과에서 보면 욕조에 몸은 담그는 방법이 가장 많았으나 그 비율이 전체의 약 50% 비율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그 밖의 다른 목욕방식이었던 샤워만 한다와 물을 받아 놓고 욕조 밖에서 한다는 응답이 거의 50%의 비율로 조사되어 개별공간의 욕실에서 욕조의 유무에 대한 필요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이 예비노인층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노인이 되었을 경우 이러한 경향은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추측된다.

4) 샤워방법

샤워방법에 대해서는 서서하는 것이 좋다(18.0%), 서서하지만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있으면 좋겠다(82.0%)로 조사되었다. 이는

기존의 일반 욕실의 샤워방법인 서서하는 방식에 대해 예비노인들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노인을 위한 욕실 계획시 샤워할 때 앉을 수 있는 공간이나 의자가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는 이미 미국과 국내의 일부 노인시설의 사례에서 도입되고 있는 내용으로서 노인공동생활주택의 개발 초기단계인 현 실정에서 공간계획에 적극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5) 세면방법

예비노인층의 세면방법은 서서하는 것이 좋다(53.8%), 앉아서 물을 받아놓고 하는 것이 좋다(46.2%)로 조사되었다. 현재의 주거공간에서는 세면대가 대부분 입식의 형태로 구성된 것이 대부분인 점을 감안한다면, 예비노인들은 앉아서 씻는 방법에 대해서도 비교적 높은 선호경향을 나타내 이에 대응한 디자인 계획이 시도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사례로서 일본의 욕실에서는 앉아서 씻을 수 있는 공간을 욕조 옆에 마련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1> 일본 시니어주택
ELEGAN MAYA의 개별욕실

6) 머리감는 방법

머리감는 방식에 대해서는 샤워의자에 앉아 샤워로 감는 것이 좋다(57.2%), 앉아서 물을 받아놓고 감는 것이 좋다(21.4%), 서서 샤워로 감는 것이 좋다(21.4%)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세면방식에서 나타난 행태와 마찬가지로 머리감는 방식에서도 역시 앉아서 씻는 방식에 대한 선호가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의 주거상황이 노인들의 행태와는 다르게 계획되어진 부분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특히 욕실에서의 행태들을 기초로 하여 구체적인 디자인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5. 개별공간별 가구 및 기기

개별공간의 공간계획과 함께 실내디자인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 있는 개별공간별 가구 및 기기에 대한 선호를 침대종류, 욕조종류, 가구제공방식, 각 개별공간별 가구 및 기기로 구분하여 이에 대한 예비노인들의 선호를 파악하였다.

1) 침대종류

앞서 논의된 것처럼 침실에서 침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선호비율이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노인들에게 이불과 요를 사용하는 좌식의 방식은 이부자리를 펴고 개는데 어려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침대를 사용하는 것이 더 용이한 방법일 수 있다. 따라서 보다 한국노인들의 행태에 근거한 디자인적 대안을 추출해 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침대의 종류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조사에서 나타난 선호하는 침대의 종류로는 황토나 옥돌을 사용하여 난방이 되도록 고안된 침대(81.4%), 등받이 각도가 조절되는 침대(10.8%), 일반적인 매트리스 침대(7.8%)의 순으로 나타났다. 황토나 옥돌로 난방이 되는 침대에 대한 선호가 월등히 높게 나타난 것은 바닥의 따뜻한 기운을 촉감으로 느끼면서 생활해 온 온돌의 좌식생활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온돌생활의 장점인 따뜻하고 딱딱한 바닥이 있으면서 생활에 편리할 수 있는 침대를 결합한 형태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외국과는 다른 한국 노인들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결과로 사료되며, 실내디자인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러한 행태를 통한 제품의 개발이 디자인 단계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욕조종류

선호하는 욕조의 종류로는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누워서 몸을 담그는 욕조(43.3%), 반욕을 위해 고안된 욕조(28.6%), 물거품이 나오는 욕조(28.0%)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반욕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 에에 대한 선호도 상당부분 조사된 것으로 보인다.

<표 7> 개별공간의 가구 및 기기에 대한 선호 (N=500)

구분		빈도(%)
침대 종류	일반적인 매트리스 침	39(7.8)
	난방이 되도록 고안된 침대(황토, 옥돌사용)	407(81.4)
	등받이 각도가 조절되는 침대	54(10.8)
욕조 종류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누워서 몸을 담그는 욕조	217(43.3)
	반욕을 위해 고안된 욕조	143(28.6)
	물거품이 나오는 욕조	140(28.0)

3) 가구제공방식

가구제공방식에 대한 선호도는 흥미로운 결과를 나타냈다. 즉 선호하는 개별공간 가구의 제공방식으로는 가구가 모두 제공되면 좋다(80.0%), 각자 가져와서 꾸미면 좋다(20.0%)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자신이 쓰던 가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친밀감이 높을 것이라는 기존의 선행연구(김혜정, 2000)와는 상반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또한 이는 기본적인 가구가 제공되더라도 입주자가 평생동안 사용해 온 가구나 액세서리를 가져와 방에 장식할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해야 하며, 입주자 자신이 스스

로 자기방을 꾸밀 수 있는 융통성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Regnier, 1994; 이관용(2003), 재인용)는 결과와도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박희진, 양세화, 오찬옥(2003)의 노인시설의 단위주거에 대한 요구분석에서 입주시 제공되는 새 가구보다 지금까지 써온 내 가구를 가져가기를 원한다는 문항에 대해 조사대상 절반이 희망하지 않는다고 답하여 본 조사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한국 예비노인들에게 있어 친밀감이나 집과 같은 분위기는 단지 자신이 쓰던 가구를 모두 가져오는 것에서 느껴지는 것은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를 관련변인별로 보면 가구제공방식에 있어서 소유형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현재 자가인 경우 모든 가구가 제공되는 것이 좋다는 의견에, 현재 임차인 경우 각자 가져와서 꾸미는 것이 좋다는 의견에 대한 선호가 높게 조사되어 소유형태별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자가의 경우 임차의 경우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므로 새로운 가구에 대한 부담이 덜하기 때문이며 새로운 주거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 미적인 측면에서 조화로운 코디네이션에 대한 열망이 내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8> 관련변인별 가구제공방식에 대한 선호 (N=500)

변수 \ 항목 내용		가구제공방식			x^2
		모든 가구가 제공되는 방식	각자 가져와서 꾸미는 방식	계	
현재 소유 형태	자가	**348(81.9)**	77(18.1)	425(100.0)	6.275*
	임차	52(69.3)	**23(30.7)**	75(100.0)	
	전체	400(80.0)	100(20.0)	500(100.0)	

* $p<.05$

4) 개별공간별 가구 및 기기

개별공간의 각 공간별로 가구 및 기기에 대한 필요도를 4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침실은 노인이 머무르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노인들을 위한 침실계획은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침실공간에 필요한 가구 및 장치로서는 비상벨이 3.63점(4점만점)으로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노인의 침실에서의 안전생활에 대해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다음으로는 아늑한 휴식코너 3.48점, 발코니 3.32점, 24시간 움직임감지 센서 3.11점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거실에서는 주로 TV시청이나 취미활동 등의 여가활동을 위한 공간이며, 손님의 방문시 접객장소로서 사용되는 공간이다. 이러한 거실공간에 대해 예비노인들은 TV시청공간에 대한 필요도가 3.70점으로 가장 높게 조사되어 거실에서의 생활행위 중 TV시청에 대한 필요도가 가장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고령자통계(통계청, 2003)에서도 볼 수 있듯이 60세 이상 노인들이 여가시간 활용방법으로 TV시청, 라디오 청취에 대해 60.6%의 선호도를 나타냈던 결과에서도 뒷받침될 수 있다.

침실공간과 거실공간에서의 발코니에 관한 계획은 응답자 대부분 필요한 공간으로 인식(평균 3.37점)하고 있었는데, 이는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의 연계성을 높이게 하는 중요한 공간으로서 특히 미국의 사례들에서는 중정을 중심으로 하는 발코니 공간에 대한 계획이 잘 되어 있어 거주자들의 시각적 접촉을 유도하여 커뮤니티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발코니 공간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리라 판단된다[1].

부엌공간은 육체적 노동을 최소화하면서 안전하고 기능적으로 계획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스화재경보장치에 대한 필요도가 3.8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았다.

욕실에 필요한 가구 및 장치로는 비상벨이 3.67점으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고 샤워부스 내 의자설치 3.59점, 보조난방장치 3.51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욕실은 노인의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로서 이에 대한 특별한 디자인이 필요하다.

<표 9> 개별공간별 가구 및 장치에 대한 필요도 (N=500)

개별공간별 가구 및 장치		필요도(평균)
침실	아늑한 휴식코너	3.48
	화장할 수 있는 공간	3.06
	발코니	3.32
	비상벨	**3.63**
	24시간 움직임감지센서	3.11
거실	누울 수 있는 소파	3.61
	TV시청공간	**3.70**
	독서나 취미생활공간	3.42
	발코니	3.42
	비상벨	3.59
	24시간 움직임감지센서	3.19
부엌	가스화재 경보장치	**3.82**
욕실	샤워부스내 의자	3.59
	거울의 습기제거장치	3.29
	온열식 수건걸이	3.22
	보조난방장치	3.51
	비상벨	**3.67**
	24시간 움직임감지센서	3.17
현관	신발착탈을 위한 보조의자	3.15
전체평균		잘못된 계산식

현관은 공용공간에서의 공적인 영역에서 거주자 전용의 사적 영역으로 들어오는 전이공간이다. 신발착탈을 위한 보조의자 설치의 필요도는 평균 3.15점으로 조사되었으나 이는 다른 가구 및 장치에 비해 가장 적은 점수였다.

예비노인들은 주로 안전에 관계된 가구나 장치의 설치에 대

1) 연구문헌에 의하면 내외부공간의 시각적 연계성은 사회적 교류와 커뮤니티 소속감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외부공간과의 연계성은 사회적 소속감을 불러일으키며, 노인주거단지에서의 자연녹지환경과의 인접성을 상호간 사회적 유대감과 공동체 의식을 높게 한다(Cranz, G. 1987; Kweon, B. et al, 1998; 이관용(2003), 재인용).

해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여가활동을 지원해주는 공간에 대해서도 높은 필요도를 나타냈다. 그러나 생활의 편리함을 지원해 주는 장치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필요도를 나타냈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노인공동생활주택의 개별공간 계획요소에 대한 선호를 파악하는 것으로서 한국적인 상황에 적합한 노인공동생활주택 개발 계획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기대하였다. 그 결론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별공간의 규모는 노후의 상황에 따라 혼자거주시와 부부동거시로 구분하여 보다 근접한 거주자의 선호경향을 파악하였는데, 혼자거주시는 11-15평, 부부동거시는 21-25평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선호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노후의 상황별 개별공간의 규모를 설정하여 계획할 것을 제언한다. 또한 노후의 예상소득과 현재 주택의 규모는 혼자거주시나 부부 동거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변인으로서 이에 따른 상황별 규모가 설정되여야 한다.

둘째, 개별공간의 구성은 전제 개별공간의 구성과 각 실의 공간구성으로 나누어 파악하였다. 우선 전체 개별공간의 구성은 앞서 제안한 규모와 함께 고려되어야 할 요소로 생각된다. 즉 혼자거주시에는 원룸형에 대한 선호가 높게 조사되어 소규모 개방형 평면으로의 계획이 적합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부부동거시에는 독립된 침실을 원하는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고 특히 2침실형에 대한 선호비율도 높아 부부 각자의 공간에 대한 선호가 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개별공간 내 부엌이 공간구성에 필수적인 공간으로 파악되어 이에 대한 계획이 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노인공동생활주택을 몇 가지 개별공간의 유형으로 구성하여 공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별공간의 각 실에 대해서는 거실/부엌/식당의 구성형태에 따라 L/DK형에 대한 선호가 높았는데, 이러한 구성은 소규모 공간의 구성에 적합한 공간이며, 1일 1식이상이 제공되는 노인공동생활주택에서 L/DK형으로 계획되는 것이 좋다. 욕실의 구성에서는 기존 욕실에서의 구성과 유사한 형태인 세면기+변기+욕조(샤워기 있음)에 대한 선호가 높아 이를 반영하는 것이 좋을 것이나 일반욕조로 계획될 경우 욕조로의 출입이 불편하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노인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새로운 형태의 욕조를 제공하는 것이 좋다.

셋째, 개별공간의 각 공간에서 일어나는 노인의 행태를 조사하였는데, 침실에서의 수면방법을 좌식과 입식에 대한 비율이 비슷하게 조사되어 이를 선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계획하는 것이 좋다. 욕실에서의 목욕방법으로는 욕조에 몸을 담그는 방법이 가장 높았고, 샤워방법에 있어서는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있으면 좋다가 높게 조사되어 샤워시 앉을 수 있는 공간과 목욕을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욕조가 제공되는 것이 좋다.

넷째, 개별공간별 가구제공방식에 있어서는 모두 가구가 제공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많아 새로운 주거환경에서 그곳에 어울리는 가구가 제공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기본적인 가구가 공급되고 거주자의 개성을 나타낼 수 있는 작은 이동식 가구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접 수 일 : 2005년 01월 14일
□ 심 사 일 : 2005년 01월 27일
□ 심사완료일 : 2005년 03월 11일

【참 고 문 헌】

김태일(1995). 유료노인주거시설의 계획조건에 관한 연구-서울거주 노인계층의 성향분석.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1(10),** 19-27.

김혜정(2002). **고령화 사회의 은퇴주거단지 디자인**-공간행태이론을 중심으로-. 경춘사.

대한주택공사 주택연구소(1996). 노인거주자를 위한 주택형 및 설계지침 연구. 대한주택공사 주택연구소 연구보고서.

대한주택공사 주택연구소(1995). 노인거주자를 위한 주택형 및 설계지침 연구. 대한주택공사 주택연구소 연구보고서.

모은경(2001). **노년기 상황별 주요구 특성에 관한 조사연구**-광주시 중년층을 대상으로-. 호남대학교 정보산업대학원.

박근형 · 양우현(1996). 노인을 위한 도시공동주택의 계획방향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2(1),** 13-21.

박희진 · 양세화 · 오찬옥(2003). 노인시설의 단위주거에 대한 요구분석. **한국실내디자인학회지, 36호,** 44-51.

산업자원부(1998).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제품 및 환경디자인 방향설정 연구.

서기영 · 이진혁(2002). 도시형 유료노인복지시설의 모형개발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8(8),** 111-120.

한국소비자보호원(1998). 가정내 노인 안전사고 실태조사 보고서.

신영숙(2001). 선호하는 유료 노인시설주거 디자인을 위한 중산층의 집에 대한 개념. **대한가정학회지, 39(12),** 165-179.

오혜경 · 홍이경 · 김현지(2004). 한국 노인주거시설의 공간계획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6),** 133-142.

오혜경 · 홍이경 · 박민진(2003). 미국 노인주거시설의 공간구성 특성에 대한 연구-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을 중심으로-.**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6),** 107-115.

오찬옥 · 이연숙(1993). 노년기의 상황설정에 따른 노인주거특성에 대한 선호. **대한건축학회논문집, 9(2),** 35-45.

이관용(2003). **노인건축**-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세진사.

이영심 · 이상해(2002). 호주 재택노인을 위한 주택수리 및 개조 사례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13(1),** 44-51.

통계청(2003). 고령자 통계.

홍이경(2004). **한국형 노인공동생활주택의 실내디자인 선호경향과 지침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홍형옥(1999). 한국의 지역사회통합형 노인주거의 대안적 모색. **한국주택학회지, 7(2),** 79-89.

홍형옥(2001a).노인공동생활주택에 대한 태도와 선호-한국에서의 노인생활지원주택 개발방향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5),** 147-166.

홍형옥(2001b). 영국의 노인공동생활주택에 대한 검토.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4),** 147-66.

홍형옥(2002). 제3연령기의 공간환경연구를 위한 관점과 쟁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6),** 37-48.

홍형옥 · 유병선(2003). 노후의 일 · 여가 태도에 따른 노인공동생활주택 선호경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5),** 13-24.

홍형옥 · 지은영(2002). 사회계층별 노인생활지원주택에 대한 태도와 선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2),** 83-95.

홍형옥 · 지은영(2004).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노인공동생활주택에 대한 견해의 지역별 비교-서울 · 수도권, 부산, 광주, 대전 지역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2(7),** 1-17.

Cranz, G.(1987). *Evaluating the Physical Environment*: Conclusions from Eight Housing Projects. In V. Regnier & J. Pynoos(Eds.).

Kweon, B., Sullivan, W.C. & Wiley, A.R.(1998). Green common spaces and the social integration of inner-city older adults. *Environment and Behavior, 30(6),* 832-858.

Regnier, V.(1994). *Assisted Living Housing for the Elderly: Design Innovations from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New York: Van Nostrand Reinhold.